

시는, 세상은, 은유다

구인용



이탈리아의 한 작은 어촌, 켄케이 쌓인 시간들을 드러낸 기암절벽을 등진 채 한 남자가 서있다. 그는 죽은 벼를 떠올리는 중이다. 죽은 자의 이름은 마리오 루폴로. 단테 알리기에리와 가브리엘 단누지오처럼 베아트리카라는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시인이었다. 남자의 제자이자 오랜 벗이었다. 그의 ‘허름한 헤르메스’¹, 그의 우편배달부(Il postino)였다.

1. 시인과 우편배달부

남자의 이름은 파블로 네루다, 칠레 출신의 인기 많은 시인이다.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칠레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고, 이탈리아의 한 작은 섬으로 망명을 온 그는 그곳에서 청년 마리오를 만난다.

마리오에게 자전거가 있었던 것은 그가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만큼이나 큰 행운이었다. 그 덕분에 그는 임시 우편배달부로 취직할 수 있었고, 유일한 수취인 ‘대문호’ 네루다와 우정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배달부 일자리를 선택 하겠다고 한 이유가 처음부터 네루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마리오는 그저 아버지를 따라 어부가 되는 것이 싫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이유는 어찌되었건 마리오와 네루다의 인연은 운 또는 운명에 의해 시작되었고, 마리오는 금방 네루다에 대한 호감을 갖는다.

마리오가 네루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마리오의 상관 조르지오의 이유와는 달랐다. 둘의 입장 차이는 그들의 첫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데, 마리오네 네루다를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인’이라고 표현하고, 조르지오는 그를 ‘인민에게 사랑받는 시인’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조르지오는 코뮤니스트(communist, 공산주의자)여서 그를 존경하는 반면, 마리오네 네루다를 로맨티스트여서 좋아한다. 연인 마틸다를 ‘Amore(사랑)’이라 부르며 시도때도 없이 키스하고, 춤을 추는 네루다의 모습을 보는 마리오의 눈빛에는 부러움이 가득하다. 마리오네 네루다와 친해지기로 마음 먹는다.

¹ 시 “일 포스티노”(황지우)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반면 네루다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마리오의 호의를 거절하는가 하면, 책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싸인을 요청하는 그에게 형식적인 서명만 해준다.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는 역시, 시에서 출발한다. 여느 때처럼 우편물을 받고 등을 돌리는 네루다의 뒷모습을 마리오는 우두커니 보고 있고, 네루다는 그에게 왜 우체통처럼 가만히 서 있냐고 묻는다. 마리오네 마치 그를 도발하듯 네루다가 시집에서 썼던 은유적 표현들을 써서 대답한다. 하지만 정작 은유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마리오에게 네루다는 은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대화를 나눈다. 시에 대한 짧은 담론을 나누는 그 장면에서 네루다가 했던 대사 한 줄은 유독 공감이 간다.

“난 내가 쓴 글 이외의 말로 그 시를 표현하지 못하네. 시란 설명하면 진부해지고 말아.”

시인과 우편배달부는 이후 빠른 속도로 친해진다. 여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시인을 동경했던 마리오네 어느새 네루다를 그 자체로 존경하게 되었고, 네루다 역시 이따금 마리오의 순수한 시선에서 나타나는 기막힌 질문과 표현²에 이따금씩 감동하며 둘은 시에 대한 스승과 제자로서, 친구로서 우정을 쌓는다. 그리고 그 동안 마리오네 베아트리카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네루다의 도움을 통해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네루다도 수배령이 풀리게 되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2. 사상과 사랑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났다면 좋았을 것을. 포스터에 소개된 바처럼 적당히 ‘詩와 바다와 자전거가 있는 영화’로, 적당히 훈훈하고 아름다운 영화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네루다와 마리오의 다정한 포옹 장면에서 나는 엔딩 크레딧을 기대하며 시간을 확인했다. 30분 가량의 러닝타임이 남아있었다. 더 이상 다룰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한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2막에 이르러서야 감독은 ‘어쩌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대문호와 초짜 시인의 기적 같은 만남은 끝이 난다. 스타는 떠나고, 일상으로 남는다. 유일한 수취인이 떠나게 되면서 마리오네 다시 직업을 잃고 무능하고 초라한 남자로 돌아온다. 그저 가끔씩 존경하는 시인의 근황을 들으며 그를 그리워할 뿐이다. 물론 마리오네 변해 있었다. 공산주의자인 네루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까, 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독교 민주당의 후보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는 수도 공사를 약속하며 인부들을 베아트리카의 식당에서 숙식시키겠다는 제안을 하고, 가장이 되지 못한 남편은 무시당한 채 부엌 뒷편으로 밀려나는 신세에 불과하다.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이 나지만 정치인들이 으레 그러하듯 후보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며, 인부들의 숙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던 마리오의 가족은 어려움에 빠진다.

암울한 상황의 마리오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를 완전히 잊은 듯한 네루다의 모습이었다. 귀국한 뒤 이탈리아를 추억하는 글에도 마리오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마리오 앞에 전달된 네루다의 우편에 그는 한껏 기대를 품지만, 편지에는 네루다의 비서가 보낸 사무적인 요청만이 들어있다. 실망을 감춘 채 네루다를 끝까지 변호하는 마리오의 헌신이, 표정의 감출 수 없는 서글픔이 내 가슴마저 미어지게 한다. 나를 비롯한 관객들은 의아해할 수 밖에 없다. 사람 좋은 미소를 보여주던 네루다 선생님께서 이토록 차갑게 한 때 정을 나눴던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름 영화제작동아리에서 두 차례 메가폰도 잡아본 연출부로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예상하며 내린 답은 ‘결말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였다. 네루다가 정말 그의 우편배달부를 잊은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영화는 둘의 이별에서 끝을 맺어야 했다.) 분명 네루다에게는 마리오에게 연락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영화의 결말에서 둘은 감동적으로 재회하며 네루다의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마리오가 네루다를 위해 섬의 아름다움을 녹음하는 장면을 보는 동안에도 마지막 컷을 상상한다. 아들 파블리토와

² “시란 시를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라는 문장에선 영화를 멈추고 말을 베껴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해변을 거닐다가, 네루다를 발견하고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 마리오의 수줍고 순박한 미소로 끝이 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상한 엔딩은 없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네루다가 다시 섬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마리오가 죽은 뒤였다. 네루다가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들을 수 없었다. 다소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우리는 5년동안 네루다가 아닌 마리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을 수 있었다. 마리오네 네루다가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로 사회주의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현장에서 군중에게 ‘파블로 네루다님께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를 읽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유일하게 적어낸 시 한 편을 읽지 못하고 진압군에게 내쫓기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만 것이다.

원망스럽다. 이대로 크레딧을 보면 안될 것 같다. 나는 마지막 컷 (에세이 첫 장의 사진)에서 영화를 멈추고 착잡한 마음에 황지우처럼 *‘머리를 박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네루다를 위한 변명을 고민한다. 아니, 이 변명은 불쌍한 마리오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참의 고민 끝에, 나는 나름대로 답을 내릴 수 있었다.

네루다의 무정함의 이유는, 마리오의 불행의 이유는 사랑보다 사상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휩싸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보자. 마리오에게 네루다는 연애시 시인이었고, 조르지오에게는 혁명시 시인이었다. 마리오네 네루다에게서 로맨티스트를 보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네루다를 코뮌리스트로 이해했다. 섬에서 네루다는 사랑꾼이었다. 섬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말했던 마리오 역시 마찬가지. 마리오와 네루다는 자신의 여인을 사랑하는 두 남자로서 존재하며 교감하고 우정을 쌓았다. 그리고 둘은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리오네 네루다에 대한 존경이 깊어진 나머지 그의 사상에도 물들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몰락하는 사회주의자로서 고독을 느껴야 했다. 무엇을 향하는지 모르는 투쟁에 합류하여 결국 그 무자비한 군중에 밟혀 죽는 신세가 되었다. 칠레로 돌아간 네루다는 더 이상 마리오의 벗으로 남을 수 없었다. 그는 ‘인민이 사랑하는 시인’으로 돌아가야 했다. 절대적 평등을 표방하는 공산주의자에게 수많은 동지들 앞에서 각별한 벗 하나를 남길 수는 없는 일. 네루다가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마리오와 나눴던 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리오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까닭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칠레 탄광에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충격을 받아, 인민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공산주의자가 된 네루다, 그리고 그런 네루다를 동경해 마지않았던 마리오. 네루다는 마리오를 외면해야 했고, 마리오네 네루다에 대한 헌시를 읊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들의 사상은 사랑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그 사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두 개인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갑자기 씩 웃고 넘어갔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다. 베아트릭체의 식당을 방문한 네루다가 일부러 그녀가 보는 앞에서 마리오에게 선물한 노트에 마리오가 원했던 ‘이름을 포함한 싸인’을 해주는 장면. 네루다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al mio intimo amico e compagno, Mario (나의 절친한 벗이자 동지인 마리오에게)”

그저 ‘벗’일 수는 없었던가. 별 생각 없이 쓰였을 ‘동지’라는 단어가 네루다의 뗄 수 없는 공산주의자로서, 사상가로서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새삼 서글프다.

3. 서글픈 그물

‘서글프다.’ 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서러움과 그리움, 슬픔의 중간 어딘가 머무르지 못하고 공허히 헤매는 유독 가슴 찡한 단어. 달리 형용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까지 담은 단어. 원망에도, 연정에도, 비애에도 이르지 못한 이 억눌린 감정은 언제나 그 자체만으로 시作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네루다를

위해 항변하는 동안 마리오의 얼굴에 비쳤던 조금의 섭섭함과 깊은 그리움, 그리고 짙은 슬픔은 한마디로 ‘서글픔’ 그 자체였다. 그 순간 마리오는 한 줄의 글 없이, 한마디 말 없이 자체로 시가 되었다.

영화에서도 단어 ‘서글픔’은 등장한다. 그물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던져보라는 네루다의 말에 마리오는 아버지와 바다를 떠올리며 ‘서글퍼요’라고 대답한다. (영어 자막에서는 단순히 ‘sad’라고 표현되지만, 이탈리아어 ‘triste’라는 단어는 ‘쓸쓸한, 허전한, 슬퍼하는’이라는 뜻을 가졌다. 일반적인 슬픔 ‘dolore’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서글픔’이라고 번역한 역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나는 서글픈 그물을 당졌다.”

“-괜찮아요?” “...”

마지막으로 은유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싶다.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는 단어기에, 교수님께서도 본 에세이의 키워드로 ‘은유’를 잡으신 것 같다. 영화에 나오는 표현 하나를 차용해서 영화를 한 마디로 은유하자면 이 영화는 “서글픈 그물”이었다. 마리오와 네루다 두 인물이 얽히는 모습과, 그들이 여인과 나눴던 낭만적인 사랑과, 그들이 정치와 사회에, 세상에 설킨 모습. 사랑과 사상의 뿔 수 없는 관계. 시와 사랑과 혁명... 어찌면 이런 것들은 눈물 같은 바다에 수 없이 반복되어 담가졌던 무한한 그물의 몇 개 매듭인 것이다. 그리고 눈물과 바람에 젖어진 인간의 그물은, 전해받은 아버지의 그물은, 서글프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글픈 그물이기에 비극인가. 이 영화는 그저, 비극인가.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인간의 이런 모습마저도 아름다움이다. 마리오도 말하지 않는가.

“(섬의 아름다움) 다섯 번째, 아버지의 서글픈 그물”



이탈리아의 한 작은 어촌, 켄터키 썸인 시간들을 드러낸 기암절벽을 등진 채 한 남자가 서있다. 남자의 이름은 파블로 네루다, 칠레 출신의 인기 많은 시인이다. 그는 그곳에서 청년 마리오를 만났다. 이 해안에서 그는 마리오에게 ‘사람은 의지가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충고 했었다. 청년은 시인의 말을 받들어 사회주의 시위에 나갔고, 사망했다.

남자는 아득한 기분이 든다. 차라리 시와 세상과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자신이 그 청년을 변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니 이별 후에 종종 안부를 확인하며 그의 벗으로 남았더라면. 청년 마리오의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다. 시인은 자신이 벗어날 수 없었던 서글픈 그물에 청년을 끌어들이 버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남자는 서글픈 표정을 짓는다.

언젠가 이 해안에서 마리오가 네루다에게 물었다.

“은 세상... 바다와 하늘과 비와 구름과 ... 기타 등등이 있는 이 세상이 다른 것의 은유란 말인가요?”

잠시 이상한 표정을 짓고는, 네루다는 수영을 하며 질문의 답을 곰곰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날 답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네루다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마리오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P.S. 은유의 이유

영화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에세이 끝에 적었던 마리오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나름의 대답을 하고 싶다. 이 세상은 다른 것의 은유인가? 철학적인 질문이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본질’을 말하기 위한 거대한 비유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어렴풋이 들었던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기억난다. 사실 ‘본질’, 즉 이데아는 따로 있고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세계의 물질들은 사실 이데아의 그림자, 모방이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은유의 본질을 고민하는 시인이야 말로 이데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이러니하게도 플라톤은 시인추방론을 주장한다. 이미 이데아의 모방물인 세계를 다시 모방하는 사람이기에, 진리에서 두 단계나 떨어져 이성적 사고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인이 은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쩌면 본질이란 것은 우리가 직접 다루기엔 너무 심오한 것이기 때문 아닐까. 시란 인간을 이루는 사랑과 사상 같은 것을 직접 형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이해의 틀 안의 관념을 차용하며 언어로 가공하여 그 이해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 해본다. 시를 짓는다는 행위는, 개인이 생각하는 이데아의 표출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을 자신의 이해로 분석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본다. 이 세상은 거대한 은유인가? 감히 답을 하자면, 그렇다. 만약 조물주라는 것이 있다면, 그 존재는 시인이 분명하다. 이데아를 모방하여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세상은, 은유다. 그렇기에,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이다. 시가 꼭 문자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 마리오의 서글픈 표정이 그렇듯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파블리토의 심장소리가 그렇듯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그렇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데아의 투영물, 즉 시이다.



오늘(2017.10.21) 밤에는 오리온자리 근처에서 유성우가 내린다고 했다. 마리오가 그랬던 것처럼 밤하늘 별이 반짝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밤하늘이 낭송하는 소망의 시를 듣고자, 떨어지는 별뿔뿔의 신비로운 소리를 포착하고자 나는 어두운 운동장으로 향한다.

P.S. 2 〈일 포스티노〉 - 황지우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영화를 소개하실 때, 시인 황지우는 이 영화를 무척 좋아해서 교수로 재직할 때 한 학기 수업을 이 영화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셨다. 황지우는 나아가 영화와 같은 제목의 시를 지었다. 본문에도 몇 행 인용한 황지우의 시 “일 포스티노”를 첨부한다.

일 포스티노

황지우

자전거 밧고 바깥소식 가져와서는 이마를 닦는 너,

이런 허름한 헤르메스 봤나

이 섬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보라니까는

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답한 너,

내가 그 섬을 떠나 너를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을 때

너는 밤하늘에 마이크를 대고

별을 녹음했지

태동(胎動)하는 너의 사랑을 별에게 전하고 싶었던가,

네가 그 섬을 아예 떠나버린 것은

그대가 번호 매긴 이 섬의 아름다운 것들, 맨 끝 번호에

그대 아버지의 슬픈 바다가 롱 숏, 롱 테이크되고

캐스팅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나는 머리를 박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떤 회한에 대해 나도 가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땀에

영화관을 나와서도 갈 때 없는 길을 한참 걸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휘파람 불며

신촌역(新村驛)을 떠난 기차는 문산으로 가고

나도 한 바닷가에 오래오래 서 있고 싶었다